

## 『창세기 26회: 창세기 24:1-67』

### ※ 주제와 전체 구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담은 장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이삭과 리브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 스토리의 중심 주제와 중요 모티프를 다시 드러냅니다. 결혼하여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듣고, 리브가는 “내가 갈 것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리브가는 “여자 아브라함”<sup>1)</sup>으로서 가족과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종은 리브가를 찾는 데에 큰 어려움이나 장애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의 응답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결정을 내리고 선택해야 합니다.<sup>2)</sup>

1-9절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신부 찾기를 위임한다.

10-61절 종이 리브가를 찾아낸다.

10-14절 종이 기도함

15-27절 우물가에 등장한 리브가

28-33절 라반이 종을 대접함

34-49절 종이 사람들에게 기도가 응답된 과정을 설명함

50-58절 리브가의 결단

59-61절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함

62-67절 이삭이 리브가와 혼인하다.

### 1. 아브라함이 종에게 위임하다(24:1-9)

구약에서 독신에 관한 주제는 거의 없습니다. 구약에서 독신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유일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많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이며, 사람은 자신의 자손 가운데 계속 존재합니다.

1)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Texas: Word Books, 1987), 윤상문, 황수철 역, 『창세기 16-50』(서울: 솔로몬, 2006), 299.

2)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27-50: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5), 권대영 역, 『창세기 2』(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410.

아브라함은 이사를 위해 밧단아람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기 원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창조도 아브라함도 아니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은 흥미롭습니다.<sup>3)</sup> 이

아브라함은 “늙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늙고 나이가 많았다”는 표현은 여호수아와 다윗에게도 사용됩니다(수 13:1; 23:1, 왕상 1:1). 이 표현 이후 그들은 생을 마감하기에 앞서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에 충성할 것을 요구했으며,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사의 아내를 구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있을 때 괜찮으면 괜찮다는 식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부재한 이후의 공동체에 관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수는 “복을 받았다”는 표현과 합쳐져서 복을 받은 삶을 상징합니다.<sup>4)</sup>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두 종류로 나누면, 볼 수 있는 복과 볼 수 없는 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두 가지 복에 관해 말하지만, 초점을 두는 곳이 다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은 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가나안 땅, 혼인, 장수, 번영, 원수에 대한 승리 등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복은 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거하심, 죄 용서, 아들 됨, 거룩함 등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영원한 복들이 주어지며, 신약에도 현세적인 복들이 주어지지만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순서상 보이는 복이 먼저이고 보이지 않는 복이 나중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복을 통해서만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복을 상상하고 유추하여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sup>5)</sup>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장수와 부요함”으로 표현되는 복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삶에서 동행하는 것, 성령의 열매”라는 복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오랜 시간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이 주시려는 본래 장수의 의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본래 부요함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잘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뼈대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장수와 부요함을 받았다는 구절을 통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장수와 부요함을 구하기도 해야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수/부요

3)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5),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I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180.

4) Kenneth Mathews, 『창세기 2』, 415.

5)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Kampen: 1895),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3』(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270.

함을 더욱 구해야 합니다.

종은 엄숙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이행을 맹세합니다. 이어서 종은 아브라함에게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 리이까?”라고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땅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서 이삭의 신부 구하는 일을 도우시리라고 선언합니다.<sup>6)</sup> 종이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앞서 가서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만일, 여자가 가나안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이삭의 배필이 아닙니다. 종은 그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종이 성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이 임무를 수행할 때 순종하는 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sup>7)</sup>

## 2. 종이 리브가를 찾다(24:10-61)

종이 가져간 낙타 열 마리와 귀중품은 ‘모하르’ 신부 값의 일부였습니다. 종의 목적지는 ‘아람-나 하라임’ 두 강의 아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근처로 추정됩니다.<sup>8)</sup>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것,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중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늘 구해야 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리브가는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종은 리브가에게 달려가서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리브가는 “급히” 종에게 물을 주었고, “급히” 종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리브가는 외인을 존중하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히” 외인을 환대하는 모습은 이전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의 세 천사를 환대하면서 “급히” 움직이곤 했습니다.

성경은 늘 자발적인 섬김을 강조합니다. 종은 이삭의 신붓감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

6) Allen P. Ross, *Creation and Blessing*(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김창동 역, 『창조와 축복』(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621.

7)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83.

8) Kenneth Mathews, 『창세기 2』, 424.

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14절)라고 기도했습니다. 종이 생각한 종은 사람은 사람과 동물의 곤경을 돌아보는 넉넉하고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은 우물가에서 만난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종이 방금 기도한대로, 리브가는 종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었습니다. 종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정해진 만큼만 하지 않고, 더 많은 섬김을 하기 마련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종의 기도한 내용보다 리브가는 더 많은 섬김을 행합니다. 리브가는 종의 가장 낙관적인 기대조차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sup>9)</sup>

종은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주는 시간 동안 묵묵히 리브가를 주목하며 기다렸습니다. 열 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길어주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두 가지 표징을 받았지만, 종은 자신의 임무를 리브가에게 발설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확대해석하여 선불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제시한 조건에 맞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sup>10)</sup> 이를 위해 종은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주는 일을 마치자, 종은 리브가에게 금 장식품으로 답례하면서 너는 누구의 딸인지, 네 아버지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는지 묻습니다. 리브가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압도된 종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물가에서 종이 처음 한 행동은 기도였고, 마지막 행동도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신속하고 완벽하게 응답되었습니다.<sup>11)</sup>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29절부터 종은 라반과 주로 대화합니다. 라반은 종은 맞이하러 밖으로 달려왔습니다. 라반은 동생이 가져온 선물과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부를 좋아하는 것은 후에 야곱을 혹사시키는 동기로 작용합니다.<sup>12)</sup> 라반은 종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호칭합니다. 라반은 종을 자신의 집 안으로 초청합니다. 라반은 종에게 최고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sup>13)</sup>

34-49절에서 종은 라반에게 자신의 임무와 여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35절에서 종은 라반에게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다음처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9)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290.

10)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83.

11)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291.

12) Kenneth Mathews, 『창세기 2』, 431.

13) Kenneth Mathews, 『창세기 2』, 432.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창 24:35)

종은 겸손하게 표현해야 하는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라반 앞에서 종은 겸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종은 “풍요롭게”, “크게 되었다”는 말을 가지고 짐승과 값진 금속과 종을 포함한 주인의 소유를 상세히 기술합니다.<sup>14)</sup> 이어서 종은 라반에게 이사를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라고 소개합니다. 이 표현은 이삭은 기적의 아이라는 의미였고, 이삭은 젊은 청년이라는 의미입니다.<sup>15)</sup>

37-41절에서 종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를 통해 종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리브가가 반드시 밧단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와야 함을 밝힙니다. 아브라함은 풍부한 소유를 가진 사람이면서 여호와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라반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42-49절에서 종은 자신이 겪은 사건을 간증합니다. 종은 자신이 기도한 것과 이어서 발생한 사건을 인용하여서 주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증거합니다. 49절에서 종은 브두엘과 라반에게 바르게 결정할 것을 호소합니다. 종은 주님이 종에게 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선한 믿음으로 행하기를 청합니다.<sup>16)</sup> 과연 라반과 브두엘은 ‘헤세드’를 베풀까요?

가문을 이끄는 브두엘과 라반은 어느 쪽으로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리브가를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종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브두엘 집안에 선물을 줍니다.

하룻밤이 지난 후에 종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자기 임무를 서둘러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54절). 그러자 라반과 어머니는 열흘만 더 있다가 가라고 권합니다. 그럼에도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고자 바로 떠나고자 합니다. 리브가는 “내가 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동사 희구법 미완료 형으로서 강한 바람을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리브가의 응답과 룯의 응답(룯 1:16)은 닮아 있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택했습니다.<sup>17)</sup> 종과 리브가는 이제 가나안으로 속히 가고자

14) Kenneth Mathews, 『창세기 2』, 433.

15)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98.

16) Kenneth Mathews, 『창세기 2』, 436.

17) John H.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Michigan: Zondervan, 1992), 김동진·정충하 역, 『서술로서의 모세오경』(서울:

합니다.<sup>18)</sup>

리브가의 가족은 리브가에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60절)라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 나가시겠다는 증거입니다.<sup>19)</sup>

### 3. 이삭이 리브가와 혼인하다(24:62-67)

이 본문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직접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종에게 말하고, 종은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종은 이삭과 상세하게 대화합니다.<sup>20)</sup> 리브가는 사라의 장막에 들어감으로써 사라를 대신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하신 여족장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에게서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

크리스찬서적, 2005), 167.

18) Kenneth Mathews, 『창세기 2』, 439.

19) Kenneth Mathews, 『창세기 2』, 441.

20)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208.